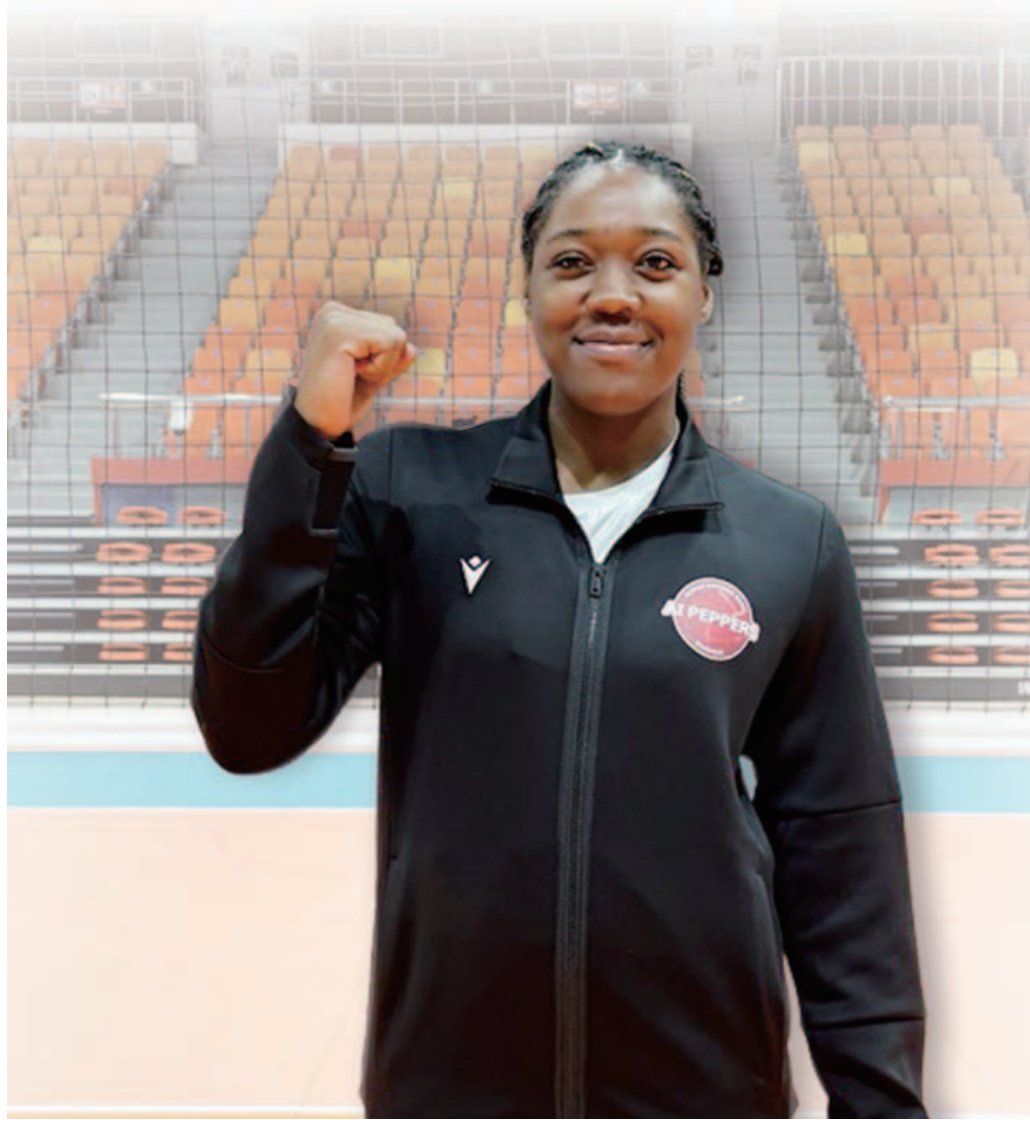


조이 웨더링턴 “봄배구 위해 모든 걸 쏟아 붓겠다”



외국인 드래프트 전체 2순위…미국 출신 아포짓
이달 1일부터 훈련 합류…“파워풀한 공격 보일 터”

“팀의 봄배구 진출을 위해 저의 100%를 쏟아 붓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에 합류한 아포짓 스파이커 조이 웨더링턴(23·미국·등록명 조이)가 12일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조이는 지난 5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2025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AI페퍼스에 합류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IBK기업은행이 가장 먼저 선택권을 갖게 됐지만, 기존 외인 빅토리아와 재계약했다. 2순위에 뽑혔던 AI페퍼스는 이로써 사실상 1순위 지명권을 갖게 됐고, 조이를 선택했다.

184cm의 아포짓스파이커인 조이는 미국, 푸에르토리코, 그리스 등에서 활약했다. 폭발적인 공격력이 장점인 그는 2001년생의 어린 나이에 V리그 무대를 밟게 됐다.

지난달 29일 한국으로 입국한 조이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팀에 합류하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12일 광주페퍼스타다움에서 만난 조이는 “팀에 합류한 지 2주 정도 됐다. 현재 팀 선수들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다”며 “감독님과 코칭스태프 등 선수단 모두 따뜻하게 환영해줬다. 분위기도 좋고 잘 적응 중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외국인 드래프트에서 AI페퍼스의 지명을 받은 뒤 곧바로 몸만들기에 돌입했다.

조이는 “AI페퍼스에서 여름에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졌고, 현지 체육관에서 그걸 소화했다”며 “현재 몸 상태는 좋다. 한국은 가벼운 무게로 반복 횟수를 많이 가져가는 웨이트 훈련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다. 훈련 프로그램도 전문적이고 내부 규칙들도 잘 정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이는 어리지만 다양한 리그에서 활동했다. 이에 팀 동료로부터 V리그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접했다. 특히 지난 2022~2023시즌 AI페퍼스에서 뛰었던 니아 리드와 지난 시즌 뛰었던 테일러 프리카노 등으로부터 많은 조언도 들었다.

조이는 “팀 동료들 중 V리그에서 뛰어본 선수들이 많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V리그에 대한 이야기

또한 듣게 됐다”며 “V리그는 좋은 선수들도 많고 경쟁력 있는 리그다. 다른 리그와 차별점은 수비가 좋다고 들었다. 점수를 내기 어려울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성장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V리그에서는 외국인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팀 내 높은 득점을 책임지는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이다. 조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아포짓 포지션으로서 파워풀한 공격을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나의 장점이다”면서 “모든 경기에서 100%를 쏟아 붓겠다는 약속을 감독님에게도 드렸다. 팀원들과 힘을 잘 맞춰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조이의 목표는 팀의 봄배구 진출이다.

그는 “개인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없다. 배구는 팀 스포츠다”며 “매 경기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특히 팀이 봄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 대한 인사 또한 전했다.

조이는 “SNS를 통해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 정말 감사하다”며 “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양시청 볼링팀, 제40회 대통령기대회 ‘종합 우승’

전국실업대회 이어 두 번째 정상…최복음·가수형 각각 2관왕 차지
곡성군청 女 동메달 2개 수확…“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활약 기대”

광양시청 볼링팀이 ‘제40회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12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광양시청 볼링팀이 지난 9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에서 금·은·동메달 각각 2개씩을 획득,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광양시청 볼링팀은 지난 5월 전국실업볼링대회에 이어 시즌 2번째 종합우승의 쾌거를 일궈냈다.

이번 대회에서 광양시청은 2인조와 5인조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복음·가수형이 출전한 2인조 경기에서 합계 2967점(평균 247.3점)으로 울주군청과 경기광주시청을 각각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5인조 경기에서도 최복음·가수형·박상혁·백승민·김동현이 나서 합계 7102점(평균 236.7점)을 기록, 2위와 무려 142점의 압도적인 기록차를 드러내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로써 최복음과 가수형은 나란히 2관왕에 등극했다.

광양시청은 3인조 경기에서 김동현·유승호·가수형이 합계 4212점(평균 234점)으로 1위와 불과 18점 차로 뒤져 아쉽게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개인종합에서도 가수형이 개인(1262점), 2인조(1468점), 3인조(1440점), 5인조(1465점)에서 총합 5635점(평균 234.8점)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마스터즈(개인종합 상위 10명 출전) 경기에서도 가수형이 은메달을, 김동현이 동메달을 각

각 보냈다.

같은 대회에서 곡성군청 볼링팀은 여자 일반부에서 3인조와 5인조 경기에서 동메달 2개를 따냈다.

이춘수 광양시청 볼링팀 감독은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준 덕분에 값진 종합우승을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제106회 전국체전 등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종남 전남도볼링협회장은 “전남 볼링팀이 보여준 투혼과 팀워크에 큰 박수를 보낸다. 이번 우승은 선수단의 땀과 노력, 지도진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다”며 “전남 볼링이 전국 정상권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력 향상과 훈련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양=김귀진 기자 kkjin@gwangnam.co.kr



광양시청 볼링팀이 ‘제40회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 유도, 김천컵전국유도대회서 두각

금2·은2·동5개 획득…순천시청 여자일반부 단체전 우승

전남 유도가 전국대회에서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고른 활약을 펼치며 저력을 과시했다.

12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2025 김천컵전국유도대회’에서 전남 선수들이 금2·은2·동메달 5개를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선봉은 순천시청 유도팀이 썼다.

4명의 선수로 여자일반부 단체전에 출전한 순천시청은 8강전에서 부산 북구청을 상대로 3-2로 승

리한 뒤 준결승에서 충북도청을 꺾고 결승에 안착했다.

순천시청은 포항시청과의 결승전에서 부상 선수 기권에 따른 0-2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극적인 3-2 승전보를 올리며 단체전 정상에 등극했다.

특히 2021년 도쿄올림픽 유도 국가대표였던 박다솔은 플레잉코치로 변신해 이번 대회에 첫 참가했으며, 뛰어난 지도력으로 지도자상을 수상하는

영예까지 안았다.

개인전에서도 전남 선수들의 활약은 이어졌다.

장혜람(순천신흥초 6년)은 개인전 여자초등부 -36kg급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하며 전남 유도의 미래를 밝히는 청신호를 켜다.

남자 대학부에서는 세한대학교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했다.

-60kg급 이승훈 3위, -73kg급 조주현 2위, -81kg급 최지우 3위, -100kg급 정진우 2위, +100kg급 조준호·안상민이 각각 3위를 기록하며 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여자일반부에서는 김지성(순천시청)이 -70kg급에서 3위에 입상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해외파’ 김아림, 국내파의 벽 넘을까

내일 개막 KLPGA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출전

올해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는 해외파 선수는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다.

김효주, 최혜진, 그리고 윤이나 등이 차례로 도전했지만, 국내파 선수들이 안방을 지켰다.

지난 10일 끝난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 출전한 윤이나는 2라운드를 선두로 마쳐 기대를 부풀렸지만 3라운드에서 치고 올라온 고지원을 마지막까지 따라잡지 못했다.

세계랭킹에서 월등히 앞선다지만, 장거리 비행에 따른 컨디션 관리, 잔디와 코스 레이아웃 등 그 세 낮설어진 환경에 국내파 선수들의 경기력도 만만치 않았다.

14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포천시 몽베르 컨트리클럽 가을·겨울 코스(파72)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에는 LPGA 투어에서 뛰는 ‘원조 장타여왕’ 김아림이 출전한다.

올해부터 메디힐 후원을 받기 시작한 김아림은 후원사 주최 대회에 나서려고 LPGA 투어 포틀랜드 클래식을 일정에 세웠다.

김아림은 지난 2022년 경기도 포천시 일동 레이크 골프클럽에서 열렸던 KLPGA 챔피언십 이후 3년 만에 KLPGA 투어 통산 4승을 노린다.

김아림은 “장거리 비행으로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들지만, 회복과 컨디션 조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샷 감각도 계속 좋은 편”이라며 “어느 대회에 출전하든 언제나 목표는 같다. 내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박지영은 타이틀 방어와 함께 시즌 첫 우승에도 전한다. 박지영은 2022년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이기도 하다.

작년에는 이 대회를 포함해 3번이나 우승했지만, 올해엔 아직 우승 볼포를 트지 못한 박지영은 최근 2차례 대회에서 5위와 6위를 차지하는 상승세를 타고 있어 기대가 크다.

다만 변수는 지난해에 처음 열렸을 때는 4월이었고 대회 개최지도 바닷가인 클럽 72에서 올해는 산악 지역 코스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5월 두산 매치 플레이에서 시즌 3번째 우승을 따낸 뒤 한동안 잠잠했던 상금 및 대상 포인트 1위 이예원은 다시 우승 트로피 사냥에 나선다.

이예원은 지난주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를 건너 뛰고 체력을 비축하고 샷을 가다듬으면서 이 대회를 준비했다.

올해부터 메디힐 후원을 받는 이예원은 “후원사 대회인 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서 “페어웨이를 놓치면 버디 기회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티샷에 가장 집중하겠다. 이 대회를 경쾌한 아이언과 드라이버샷을 정교하게 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시즌 2승을 올린 방신실을 비롯해 홍정민, 이동은, 고지우, 이가영, 정윤지, 김민선, 박혜준, 김민주, 배소현 등 올해 우승자들이 출출동한다.

박민지는 통산 20승 도전을 이어간다.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생애 첫 우승을 올린 고지원은 출전 신청 마감 이후에 시드를 획득한 탓에 이 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한다. 연합뉴스